

대구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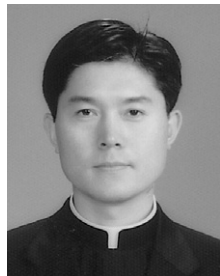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11. 5. 1.(7월) | 제1726호 |

주일의말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재영 요셉 신부
대천본당 주임



프랑스의 성인 루도비코가 왕으로 있던 어느 날 파리의 한 성당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사 때 사제가 거양성체를 하는데 미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이 기적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밀듯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루도비코 왕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당에서 미사참여를 하려고 막 들어가려는데 한 신하가 달려와 그 기적을 전해주게 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성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와 같은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의심나는 사람들은 거기 가 보시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도 확실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토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하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토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학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가끔 토마와 같은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더 잘 믿겠는데, 내 귀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믿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각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계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고 의롭게 살면 언제든 그 어느 때든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주년 기념 생명사랑나눔 대축제

I. 사랑의 바자회 II. 사회복지 박람회 III. 다문화 축제

◎ 일시 : 2011년 5월 7일(토)~8일(일) ◎ 장소 : 성김대건기념관 및 대신학원 운동장

개막식 : 5월 7일(토) 11:00 / 다문화 미사 : 5월 8일(일) 10시 성모당



낙태도 살인입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주교
회의 춘계 정기총회는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에 거
행하던 '생명의 날'을 5월 첫 주로 변경하면서 그
명칭도 '생명주일'로 바꾸었습니다. 주교회의가
'생명의 날'을 '생명주일'로 승격한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을 수호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함
입니다.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가장 중대한 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회는 유아살해와 낙태를 '흉악한 죄악'이라고 규
정하였습니다.(사목헌장 51항) 낙태는, 생명을 돌보
아야 할 부모와 의료인들이, 최소한의 방어능력조
차 없는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무참히 침해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매일
1,000여 건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아가 인
간이 아니고 그냥 핏덩어리요, 낙태는 일종의 혹을
떼는 수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낙

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또는 '건강권'이라고 주
장하거나, 불법낙태를 현실화하여 '사회 경제적 이
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아예
낙태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시
작됩니다. 곧 남녀의 생식세포가 수정되는 그 순간
부터 아버지의 생명도 어머니의 생명도 아닌 독립
된 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하
며, 그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지닌 권리를 인정해
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60항 참조)

오늘, 생명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생명의 수호자가 되고,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서기
를 희망합니다.

2011년 5월 1일

제1회 생명주일에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장봉훈 주교

+ 장 봉 훈

나눌때 ♥은 더욱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입당성가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44 성도의 성월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
어라. 알렐루야.

파견성가

141 죽음을 이긴

영성의 향기

∴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이들 중에는 더러 세속에서 배운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마치 점포에 물건을 사러 온 소비자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



는 것이겠지만, 이들은 하느님 앞에 모인 가족으로 다른 교우들을 대하기보다 자신이 받아 마땅한 대접과 서비스를 요구하곤 합니다. 그 요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불만스러워하며, 때로는 화를 내거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더라도, 공동체의 생활에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고 미사만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만 가져가고 싶어서 그럴 테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창기 교우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모습이고, 이 안에서만 가장 좋은 것, 곧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시간낭비?



19세기 미국의 정치가였던 찰스 프랜시스 애덤스가 하루는 어린 자기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그날 애덤스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붕어 새끼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 전쟁! 온 종일 시간만 허비했다.” 그의 어린 아들, 나중에 독립전쟁의 영웅이 될 어린 애덤스도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아들 애덤스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아빠와 같이 낚시를 했다. 아빠하고 하루 종일 함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우리 어른들이 때로는 헛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율겨은 글입니다 -

모임 / 행사

교구평협 성모의 밤

일시: 5.7(토) 19:30, 성모당
주례: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교구평협 제단체 임원 및
본당 평협위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소 / 피정

곤벤뚜알프란치스코 성소주일 행사

일시: 5.15(일) 13:00
장소: 대구 월배수도원
대상: 중1~30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및 접수: (010)5064-7467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일시: 5.6(금) 18:00 ~ 8(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 (숙식제공)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5.8(일) 14:00, 부산 초량성서교육원 3층
문의: (016)332-2885

교육 / 모집

시편성가연구집정성수녀, 발성법(백제연)회비1만원

일시: 5.1(일) 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4기 추가모집
접수: 3.26(토)~, 신부님 추천장학 혜택
미국(펜실베이니아대) 유학시 학점 인정되어

1년내 석사학위 취득, 무료 어학연수 기회
영어회화 전담강사 대비, 자녀동반유학 무료
문의: 526-0111(http://tesol.cu.ac.kr)

5월 영어 성경 공부반 모집

개강: 5.3(화) 10:00~12:00 (월 2만원)
과장: 화갈라다아서, 신명기/목마르코복음, 창세기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2011년 신입생모집

2011학기 석사과정 야간 2년제
경영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접수기간: 5.9(월)~13(금), 휴일 제외
문의: 526-3417~8 (http://www.cu.ac.kr)

제8,9기 대구대교구 가톨릭어머니학교 개설

일시: 5.19(목) 9:30~14:00, 매주 목(5주간)
5.19(목) 19:00~22:00, 매주 목(5주간 야간)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선착순 100명)
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면 누구나 가능
문의 및 접수: 743-7010 / (010)6669-9746

대구SOS어린이마을 어머니지원자 모집

분야: 생활지도원(어머니지원자), 983-3154
근무조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근무형태: 정규직, 상주근무, 25세~35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daeguosos@hanmail.net
제38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3(토)~8.15(월)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6.26(일)~8.7(일)

주관: 마신부님 (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성모봉헌전 모집

장소: 강화예수성심대성전 가정을 위한 성모봉헌전
문의: 예수성심전교수도회, (02)379-8071, 8091
강화예수성심대성전과 함께 건립될 성모봉헌전에
가정의 평화와 은총을 기원하며 봉헌합니다.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안내

중독이나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위한
병동을 오픈하였습니다.
설립·운영: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문의: (031)639-3700, 원무과: (031)639-3731~4

직원 채용

산격성당 사무원 채용

제출서류: 교적사본
자격: 35세미만 미혼(여), 컴퓨터 사용가능한자
문의: 943-9030 / (010)3057-7698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가톨릭문화관 사무실 임대(1층10평,16평)
문의: 사무장 (011)9579-7382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5월 2일(월) 오전 11시	계신주교좌성당	5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5월 4일(수) 오전 11시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2층 강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5월 5일(목) 오후 2시	성모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2일(월) 오전 11시	옥계성당	미바회 미사	5월 6일(금) 오후 2시	성모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5월 2일(월) 오후 7시30분	꾸르실로 교육관	성모의 기사회 미사	5월 7일(토) 오전 10시	월배성당 내 수도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미사	5월 2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푸른군대 첫 토요일심신미사	5월 7일(토) 오후 2시	성모당

이원 의료기

혈압계·혈당계·혈체어·인마기
뜸·부항기·찜질기·체온계
글루코사민·오메가3·칼슘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5-8
서울 -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대표 김순자(마리아)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상담소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3대를 전통과 신도봉이를 고집하는 기업
(주)약령시사람들
“경육과 다양한 제품류”
● 노인생필품, 생약기어니, 수험생,
갱년기 여성교우님 특별 우대
웰빙건강식품, 각종 선물류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 428-8002, 011-528-8008

2484 익스프레스

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수맥 흙(돌)침대

대표전화: 1588-5335
21주년 공장직판
수맥지도 임 응 승 신부님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대려사소비센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아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신품,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 일(그라산도)신부